

韓國에 있어서의 經營學 研究·教育의 動向과 方向*

金 元 銖

《目 次》

I. 序 言	3. 韓國에 있어서의 經營學研究·教育의 評價와 課題
II. 韓國經營學研究·教育의 動向	III. 結言—展望과 方向
1. 韓國經營學研究의 動向	
2. 韓國經營學教育의 動向	

I. 序 言

本稿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서울大學校 經營大學의 新築校舍 鮮京經營館의 竣工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經營學 國際學術심포지움에서 발표하기 위해 「韓國에 있어서의 經營學 教育·研究의 現況과 方向」을 모색하여 본 것이다.

한국경영교육·연구의 現況 즉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우리들의 노력의 結集의 產物로서 이에서부터 이어져온 것이며 앞으로 미래를 향해 성장·발전해 갈 宿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韓國經營學教育·研究의 과거를 回顧하여 그 發展動向을 概觀하는데서 비롯하여 현재의 位相을 평가·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方向을 展望·摸索하는 과정을 밝고자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경영학 교육과 연구는 언제부터 비롯되었던 것일까? 경영학이 産業革命 이후로 급속히 발전되어 온 西歐發祥의 近代學問의 일환인 이상 이에 대한 自生的 契機나 基盤이 과거에 없었거나, 설령 그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단절되어 버린 學問的 後發國 특히 동양권에서의 近代學問의 교육연구는 學問的 先發國에서의 研究成果의 移入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그와 같은 학문이입의 계기가 되는 研究關心은 주로 制度的 教育機關에서의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 유발되기 마련이었다. 예컨대 獨逸에서의 경영학의 주류인 經營經濟學에 대한 研究가 1895년에 설립된 獨逸商業教育協會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商科

著者: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 本論文은 1990年 10月 16日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經營學 教育과 研究에 관한 國際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論文입니다.

大學設置運動의 결과로서 설립되게 된 상과 대학에서의 중심교과목의 摸索過程에서 기존의 商業學의 經濟學化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성립하게 되었음을 想到할 때 수긍이 가는 일이다([5][18] p.527).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近代化過程을 밟는 學問的 後發國에서 근대학문의 研究契機는 바로 제도적 고등교육기관을 매개로 하는 연구관심에 의해 유발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4] p.327).

그런데 한국에서, 경영학의 교육·연구의 始原을 이와 같이 규정하는 것은 韓國經營學史探究의 범위를 지나치게 시간적으로 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세이전에 형성되었던 한국교육의 經營學的 成果의 發掘과 評價를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전제조건을 먼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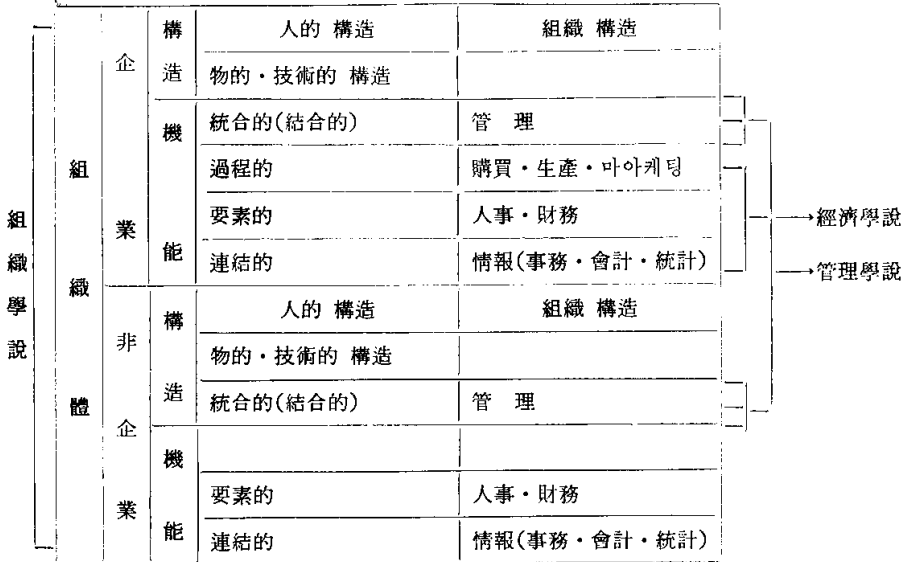
- ① 研究와 教育의 意義와 相互關係
- ② 經營學의 學問的 性格과 그 包括範圍
- ③ 考察·分析의 時間的 範疇
- ④ 考察·分析의 對象內容의 範圍
- (1) 研究와 教育의 意義의 상호관련

研究(research)란 미지의 대상에 대하여 알고자 하여 전개하는 인간의 知的 探究活動인데 이의 본질은 광의의 정보처리활동이다([6] pp.19-20). 이를 통해 문화의 한 형태인 학문 즉 진리에 대한 지식체계가 형성된다. 이에 대해 教育(education)이란 人類라는 種의 持續을 위해 영위되는 문화의 傳承方式의 하나로서⁽¹⁾ ([24] p.154) 인간성의 지속을 위해 개인의 個性化와 紐帶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본질은 개인이 가진 分別選擇能力에 의한 納得을 통한 과거의 文化蓄積의 選擇的 受容으로서 이를 통해 지식이나 능력, 기능 또는 태도의 습득과 개발이 이루어져 개인의 成長·成熟化가 이룩되며 개인의 選別環境對應能力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이란 世代間의 文化的 承繼作業이며 그 자체는 情報傳達(communication) 활동이며 그 목표는 文化的 共有體系의 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개인의 個性的 成熟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시스템내에서의 聯帶의 형성을 통해 役割遂行者로서의 인격과 능력의 형성을 뒷받침하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란 교육이라는 전달작업의 傳達內容(message)이 되는 것이며 이는 마땅히 교육에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1) 이에는 놀이(play), 技文化, 틀에의 習熟 및 知識의 分化·傳達의 네 가지가 있다([24] p.154).

〈圖 1〉經營學的範圍



(2) 經營學的 學問的 性格과 그 包括範圍

오늘날의 經營學은 正體危機(identity crisis) ([3] pp.11-12 참조)를 맞고 있다고 할 정도로 多樣化되어 경영학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經營學에 包括되는 範圍를 〈圖 1〉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를 모두 包括하는 廣義의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3) 考察・分析의 時間的 範圍

經營學原流의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경영학의 主流인 經營經濟學이 그 이전의 학문체계인 商業學의 經濟學化에 의해 성립되었음에 미루어 商業學의 研究成果도 경영학의 先史의 研究로 보아 고찰의 대상으로 보기로 한다.

그런데 한국은 서구의 2천년의 역사에 비하면 더 긴 5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영학교육과 연구에 대한 歷史的 考察을 하려면 西歐發祥의 近代學問으로서의 경영학의 移入에 앞서 自生的으로 형성되었던 한국고유의 경영학적 뿌리의 고찰도 필요하고 예컨대 丁茶山을 위시한 實用學派들이 學說이나 開城簿記로 일컬어지는 松都四掛나 珠算과 같은 成果([12] [18] p.32 및 p.33)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邇時的 研究(retrodictional study)의 일환으로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분석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先學들의 記述의 研究成果를 概觀要約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4) 韓國經營學의 時期의 規定과 時代區分

한국에서의 경영학시기의 時期를 규정하는 관점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견해가 있다.

- ① 經營學教科의 도입
- ② 經營學科의 창설
- ③ 經營學會의 창설

이러한 세가지 견해중 ③을 따르면 1957년이 되며([12] [18] p. 32) ②의 견해를 따르면 1955년이 된다(cf. ditto). 그러나 ①의 견해를 따르면 光復以前의 일제하의 植民時代는 물론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단 ②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한국에서의 경영학의 발전을 더듬어보기 위한 시대구분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ibid., pp. 32-33).

① 朝鮮王朝末까지의 시기

이 시기까지의 경영학을 필자인 宋교수는 개화기의 '경영학' (1876~1910)으로 이름부쳐 고찰하고 있다(cf. ibid., pp. 33-38).

② 日帝植民統治의 시기—이 시기의 경영학을 '일제식민지하의 경영학'으로 이름부쳐 고찰하고 있다(cf. ibid., pp. 38-49).

③ 8·15해방 이후의 시기—이 시기 이후의 경영학을 다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 (cf. ibid., pp. 49-66).

1. 經商學併立期
2. 經營學獨立期
3. 經營學擴大期(1964~)

본고에서는 광복 이후의 동향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5) 經營學教育의 範圍의 限定

경영학을 그 연구대상인 기업경영에 대한 知識(기초지식 및 응용지식 포함)의 체계라 할 때 이를 전수하는 教育機關에는 제도적 교육기관인 학교와 이 외에 학원 등이 있고 기업자체에서 실시하는 기업내 경영교육도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도적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시행되는 學校經營學教育 이외에 企業經營學教育도 아울러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본고에서는 대학에서의 경영학교육·연구에 한정하기로 한다.

(6) 考察分析의 對象內容의 限定

경영학교육·연구의 動向과 現況의 고찰을 한다고 할 때 經營學教育만 하더라도 이와 관

던되는 내용으로는 教育制度, 學科編成, 教科課程編成, 教育施設, 教育方法 등 다양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망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문제점부각과 해결 과제의 모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II. 韓國經營學研究·教育의 動向

1. 韓國經營學研究의 動向

이하에서는 편의상 광복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 光復 이전

앞에서 보았듯이 經營學研究의 契機가 교육의 필요에 의해 서구발상의 근대학문이 이입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에서의 경영학에 관한 연구는 이의 先史형태인 商業學의 도입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910년 이전에 설립된 최초의 상업고등교육기관인 普成專門學校(現高麗大學校)의 理財科(후일 경제과, 1910년에 상업학과로 개칭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우리말로 쓰여진 다음과 같은 교재가 저술되었다.

- 1897년, 趙齊桓, 交通概論
- 1906년, 張弘植, 商業의 意義
- 1906년, 張弘植, 我國의 實業觀
- 1907년, 金大照, 商業汎論(上, 下)
- 1908년, 任璟宰 編述, 簡易商業簿記學
- 1908년, 任璟宰, 改編銀行簿記學
- 1908년, 張弘植, 論法律이 不如實用

그런데 미국적인 경영관리론적 성격의 경영학의 뿌리는 普成專門學校 理財學專門科에서 1906년에 개강된 “銀行會社商店管理法”으로 볼 수 있다([12] [18] pp. 34). 1910년에 상업학과의 개설과 더불어 商業經營論이 개강되었는데 당시의 교과내용이 어떤지 명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1909년에 발간된 安國善의 「商業經營法(全)」의 목차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cf. *ibid.*, p. 35).

1910년에 일제의 강압에 의해 韓日合邦이 강행된 이후 일제는 韓國文化의 말살정책에 따른 語文政策으로 우리말로 된 교재연구는 중단되고 日語와 日語로 된 교재만이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을 매개로 하여 商業高等教育機關의 독일의 경영경제학이 도입·소개되고 미

국의 테일러 이후에 성립된 科學的 管理論도 역시 도입·소개되었었다([12] [18] p.39).

(2) 光復 이후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語文을 되찾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학연구의 전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남북으로의 국토의 분단, 극심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따른 정치·경제의 혼란 등으로 일제의 植民統治下에서 이탈한 空白를 메우기도 어려웠다. 더구나 1950년에 발발한 6·25動亂은 그와 같은 취약한 연구기반마저도 뿌리채 흔들어 놓았다. 따라서 경영학연구도 1953년의 휴전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비롯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이후 한국에서의 經營學研究는 현저한 발전을 거듭하여 30여년간에 걸쳐 3천여 편의 연구발표를 기록하게 되었다([11] [18] p.650). 그런데 이 중 적게는 50%이상, 크게는 80%이상의 논문이 1980년 이후에 발표되었다([13] [18] p.889).

1984년에 韓國經營學會가 편찬한 韓國經營學研究總目錄에 수록된 總論文篇數는 1,797편인데 이는 1971~1981년 사이에 발표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1971년 이후 1986년까지 經營學會誌를 비롯한 각 분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편수는 <표 1> 上段에서 보듯이 총 417篇

<표 1> 研究論文篇數

領 域	資料源	1970 이전	1971~1975	1976~1980	1981 이후	계
經 營 一 般	(11)	—	3	3	3	9
	(12)	5	16	37	65	123(16.7%)
會 計 學	(11)	—	11	16	30	57
	(12)	8	13	21	58	100(13.6%)
組 織·人事管理	(11)	—	7	9	57	73
	(12)	6	16	32	57	111(17.0%)
마 아 케 팅	(11)	—	3	4	22	29
	(12)	7	22	27	55	111(15.0%)
財 務 管 理	(11)	—	5	13	46	64
	(12)	8	25	37	42	112(15.1%)
生 產 管 理	(11)	—	1	5	14	20
	(12)	2	7	16	26	51(6.9%)
國 際 經 營 學	(11)	—	0	18	49	67
	(12)	3	13	39	74	129(17.5%)
經 營 政 策	(11)	—	3	0	0	3
	(12)	—	—	—	—	—
기 타	(11)	—	2	1	6	9
계	(11)	—	35	69	227	331
	(12)	39	112	209	377	737 (100%)

자료 : [2] [18], [14] [18] p.626에 의함.

이다.

이중 86篇의 논문은 경영학교육방법, 교과과정개발, 산업개관, 수출촉진 등에 관한 논문이며 331篇이 경영학교유의 연구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70년대 이전의 자료도 포함하여 48개 대학에서 간행된 90종의 학술지와 5개 학회에서 간행된 5종의 전문학술지에 수록된 총논문편수는 737편⁽²⁾으로서 전공영역별 분포를 보면 <표 1>의 下端과 같다.

위에서 살펴 본 바를 전제로 할 때 한국에서의 經營學研究動向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cf. [14] [18] pp. 625-638).

첫째, 양적으로 연구가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研究主題도 다양화 되었다.

둘째, 研究方法면에서 볼 때 2차자료 중심의 빈도분석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셋째, 실무 및 정책 위주의 現實指向性이 강한 연구가 많다.

네째, 규모·업종·지역 등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반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표 2> 研究水準別論文分布

연 구 수 준	편 수	비 율(%)
한국경영의 記述	7	25
한국내 경영학수준의 분석	1	3
한국경영현실의 이론적 분석	17	61
한국경영현실의 이론화	3	11
계	28	100

자료 : [10] p. 43.

<표 3> 研究水準別論文篇數

연 구 수 준	논 문 편 수	비 율(%)
(개념적 연구)	(194)	(58.6)
외국이론의 소개	106	
한국현상의 記述	88	
(실증적 연구)	(87)	(26.0)
외국이론의 검증	38	
한국현상의 실증적 연구	49	
(방법론적 연구)	(5)	(2.4)
(모델개발적 연구)	(45)	(14.0)
계	331	(100.0)

자료 : [2] [18] p. 56에 의함.

(2) 50편은 분류가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되고 있음([14] [18] p. 621).

다섯째, 예컨대 學際的 研究와 같은 共同研究보다는 단독연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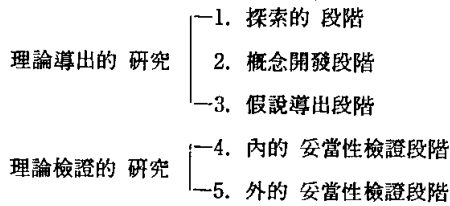
그러면 韓國經營學의 研究水準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일까? 일찌기 1980년대 초에 한국경영학의 수립을 주장한 필자는 28편의 韓國企業經營關聯論文의 연구수준을 <표 2>와 같은 4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韓國經營現實의 이론화를 통한 한국경영학의 성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표 3>에서 보듯이 연구논문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다시 이를 그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찰한 다음 概念的 論文이 194편인데 대해 實證的 論文은 87편으로 그 비율이 2.2:1 이상이 되므로 韓國的 經營學理論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2] [18] p.561).

또한 외국이론의 소개나 그것을 수정없이 우리나라 상황에 실증적으로 적용시켜 보려고 시도한 논문은 총 331편중 144편(개념적 논문 106편, 실증적 논문 38편)이 됨을 밝히고 이러한 연구가 韓國的 經營學理論의 開發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지난 15년 동안에 실증적 검증을 한 것이 38편 밖에 되지 않음을 아쉬워하되 70년대에 대비하여 80년대에 이러한 연구가 活性化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cf. ditto).

韓國的 狀況을 고려한 연구논문들이 <표 4>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연구단계상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 <표 5>인데 이에서 보면 개념적 논문의 경우 4편의 變數導出的 論文을 포함하여 88편 전부가 이론 개발의 초기단계인 理論導出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표 4> 研究水準의 段階



자료 : [26] [2] [18] p.553.

<표 5> 연구수준별 연구논문수

구	분	논 문 수	구	분	논 문 수
(개념적 논문)			(실증적 논문)		
1.	탐색적	88	1.	탐색적	38
2.	개념형성적	—	2.	개념형성적	1
3.	가설도출적	—	3.	가설도출적	—
			계		137

자료 : [2] [18] p.565.

실증적 논문의 경우도 39편이 定性的 接近方法을 사용한 理論導出的 水準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定量的 方法을 통하여 理論檢證的 研究를 행한 논문은 16년동안에 겨우 10편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韓國經營學教育의 動向

이하에서는 광복 이전의 先經營學에 해당하는 시기의 교육동향은 제외하고 광복 이후를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經商學併立期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經營科와 商學科를 병설하여 왔으며 商科에서 經營學關聯科目으로서 개설된 교과목을 보면 1948년 현재 商業學, 會計學, 經營經濟學, 工場經營論(이상 필수 과목) 등이 있었으며([12] [18] p. 51) 工業簿記, 原價計算, 配給論, 倉庫論, 信託論, 海上保險論, 監查論(이상 선택과목) 등이 개설되어 있었다.

(2) 經營學獨立期(1955~1964)

1955년 고려대학교에서는 經商大學이 폐지되고 商科大學이 신설되었는데 이 대학의 편제는 商學科와 經營學科의 두 科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초로 대학수준에서 경영학과가 창설되게 되어 경영학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ibid., p. 54). 그 후 뒤이어 다른 대학에도 경영학과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비록 경영학과가 창설되기는 하였어도 초기에는 兩科의 교과과정상 아무런 차이도 없었으나 종래 부수적인 과목으로서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던 經營學總論이 이러한 단계는 벗어나게 되었고 여타의 경영학과목의 비중도 크게 늘어나기는 하였다. 예컨대 1961년의 고려대학교의 상학과·경영학과 공통의 커리큘럼상으로는 會計學原理(I), 會計學原理(II), 經營學總論, 經營組織論, 市場論, 原價計算(I), 人事管理論, 企業財務論, 保險學總論, 稅務會計, 交通論, 金融制度論, 廣告學, 콘트롤러십(controllership), 工業經營論, 經營政策, 原價計算(II), 會計監查, 豫算統制, 商業經營論, 生産管理論(品質管理 포함), 市場調查論, 應用簿記, 投資論, 管理經濟學 및 銀行經營論 등의 여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었다(cf. [12] [18] pp. 55-57).

경영학과가 대학편제상 실질적인 독립기로 접어드는 것은 커리큘럼상으로 양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예컨대 1964년의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의 상학과나 경영학과의 커리큘럼상으로는 비록 편의상이기는 하였지만 상과는 시장론전공과 재무론전공, 경영학과는 경영학전공과 회계학전공으로 4대 분과화되고 커리큘럼도 차별화되었다. 즉 상학과는 마케팅·재무론중심으로, 경영학과는 경영학·회계학 중심으로 교과목이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경영학과에는 經營數學, 經營史, 經營學史, 經營統計, 事務管理 등이

새로이 개강되었다.

(3) 經營學擴大期

1960년대 중반부터 특수대학원 수준에서의 경영학교육이 크게 확충되게 되었다. 이의 계기가 된 것은 1957년부터 비롯된 國際協助處(ICA)의 경영기술 원조계획에 의한 미국워싱턴대학과 高·延大의 제휴였다([12] [18] pp. 65-66). 왜냐하면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론과 실무면에서 능력을 갖춘 경영자의 양성이 요청되었는데 이미 대학을 졸업한, 기업에 있는 현역 經營者의 再教育을 위해서는 미국식의 경영대학원제도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학원에서의 경영학교육이 二元化되어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리하여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일반대학원에 통합시켜 一元化하고 經營者中心의 그것은 最高經營者課程(Advanced Management Program)을 신설병치하여 產學協同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4) 韓國經營學教育의 現況

(가) 商經系學科의 設置動向

앞에서 보았듯이 경영학의 先驅學問인 商業學이 도입됨에 따라 1915년에 연세대학교에 처음으로 상업학 과목이 設講되고 해방과 함께 상학과가 개설되었다. 그 후 각 대학에 상학과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는데 1950년에 淸州商科大學(현 청주대학교), 1951년 고려대학교, 전북대학교의 순으로 설치되어 상과와 상학과를 포함하여 42개교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1955년에 고려대학교에 經營學科가 처음으로 창설된 이후 1958년에 연세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와 동국대학교, 1961년 성균관대학교, 1962~1964년간에 12개 대학, 1963년~1969년간에 11개 대학, 1971년~1972년간에 8개 대학, 1976년에 4개 대학, 1977~1981년간에 거의 모든 대학에 경영학과가 개설되었다([16] [18] pp. 163~164).

경영학과에 이어 會計學科가 처음으로 전북대학교에 개설되었는데 그 후 1961년에 영남대학교, 1976년에 4개대학교(서강대학교, 경기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남대학교), 1977년에 4개대학교(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1978년과 1979년에는 각각 9개대학과 8개대학에 개설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 회계학과가 개설되었다(ibid., p. 164).

1973년에는 경기대학교에 처음으로 觀光經營學科가 창설되었으며 그 후 7개대학에 개설되었다.

1978년에는 產業經營學科가 3개대학에 개설되었고 그 후에도 4개대학에 개설되었으며, 1981년에는 호텔經營學科가 신설되었다.

1958년에는 자연계로 간주되는 工業經營學科가 한양대학교에 창설되었고 1968년에 동국대학교와 인하대학교, 1973년에 아주대학교에도 개설되었다. 1959년에 고려대학교에 農業經營學科, 1962년에 부산수산대학에 水産經營學科, 1978년에 조선대학교에 食品經營學科, 한국해양대학에 海運經營學科 및 한국항공대학에 航空經營學科가 신설되었고, 1981년에 강원대학교에 山林經營學科가 개설되었다(cf. [16] [18] pp.164-165).

이에서 보듯이 비단 經營學科뿐만 아니라 會計學科를 위시하여 特殊經營論의 성격을 가지는 산업별·업종별 경영학의 성격을 가지는 여러 학과가 개설되어 亞流格의 경영학과가 크게 늘어났다.

1986년 현재 전국에는 그 228개 학과가 개설되어(*ibid.*, p.165) 경영학교육을 말고 있다. 한국에서의 경영학교육은 量的 擴大를 거듭하여 왔다. <표 6>에서 보면, 1974(학)년도에는 대학 45개, 전문대 16개소에 경영학관계 학과수가 총 92개였었고 이에 등록된 학생수

<표 6> 한국경영학교육의 확대추이(74~84)

	1974년도 ¹⁾	1984년도 ²⁾
대학수	61	220
(전문대학)	(16)	(120)
(4년제대학)	(45)	(100)
경영계열학과수(총계)	92	350
(전문대학)	(17)	(132)
(4년제대학)	(75)	(218)
학생수	17,859	199,791
(전문대학)	(1,200)	(29,411)
(4년제대학)	(14,619)	(130,729)
(대학원석사, 전문대학원)		(15,803)
(대학원박사)	(2,040)	(634)
(방송통신·개방대학)	—	(23,214)
교수수	383	1,000 ³⁾
(전문대학)	(16)	145
(4년제대학)	(367)	855

1)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Expanding and Improving Programs of Education in Management in Korea*, 1975 (IBRD조사단보고서).

대학교는 경영계열학과가 있는 대학뿐임. 학과수에는 무역과, 통계학과가 포함됨. 학생수는 학과 소속등록인원임. 교수수도 학과소속등록인원임.

2)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5.

대학수는 전체 인가대학수임. 학과수에는 무역학, 회계학, 부동산, 관광경영, 보험, 국제경영, 세무, 세무관리, 호텔경영, 판매관리학과가 포함됨.

3) 『경영학연구』, 14권 제 2호(1985.2)에 실려 있는 경영학회 회원수임. 따라서 이 숫자에는 과거 회원이었으나 교수직을 떠난 사람이 소수 포함되고 있으며, 또한 회원에 아직 가입치 않은 현직교수가 포함되지 못한 것이 감안되어야 함.

자료 : [21] [18] p.32.

〈표 7〉 경영계 졸업생의 비중과 동향

(단위 : 명)

구분 년도	졸업생		비중($\frac{B}{A}$)	지수(63=100)
	전체(A)	경영계(B)		
63	20,432	1,902	0.09	100
64	36,180	4,915	0.136	258
65	36,180	4,531	0.125	238
66	22,166	3,180	0.143	167
67	22,338	2,965	0.133	156
68	26,974	3,820	0.412	201
69	22,684	2,576	0.114	135
70	23,515	2,883	0.123	152
71	27,168	3,172	0.117	167
72	29,544	2,871	0.097	151
73	28,775	2,569	0.089	135
74	30,153	2,332	0.077	123
75	33,610	2,276	0.067	120
76	34,715	2,423	0.069	127
77	37,374	2,384	0.064	125
78	41,680	2,552	0.061	134
79	45,424	2,873	0.063	151
80	49,735	3,028	0.060	159
81	55,806	3,788	0.068	199
82	62,688	4,521	0.072	238
83	72,272	5,374	0.074	283
84	90,888	3,922	0.043	206
85	118,584	10,358	0.087	545
86	137,848	13,680	0.099	719
87	149,582	13,821	0.092	727
88	161,983	15,690	0.097	825

자료 : [16] [18] pp.170-172 및 [8] [9]에 의함.

는 대학원 2천여명을 포함하여 약 18,000명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4(학)년도에는 등록 학생수가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또 대학의 수도 4년제대학 100개교, 전문대 120개교로 늘어나서 이들 대학에 총 350개의 학과가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 교수수는 학생수와 학과수의 증대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못하고 1974(학)년도에 383명이던 것이 10년후인 1984년(학)년도에도 기껏 이의 3배 정도인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f. [21] [18] pp.72-73).

(4) 經營系卒業生の動向

經營學教育을 포함하는 교육의 주된 역할인 문화의 계승은 미래의 社會主役인 後繼世代

〈표 8〉 경영계학과수와 학생수(88년 현재 사회계학부)

학 과 명	학 과 수	학 생 수(%)	졸업생 수(%)
경영정보학과	5	549 (0.6)	20 (0.13)
경 영 학 과	92	68,114(69.3)	11,337(72.25)
관광경영학과	13	3,339 (3.4)	475 (3.02)
보험경영학과	1	40 (0.04)	-
호텔경영학과	1	172 (0.17)	22 (0.14)
회 계 학 과	55	25,679(26.2)	3,817(24.33)
정보관리학과	1	298 (0.30)	19 (0.12)
계	168	98,191(100)	15,690(100)

자료 : [9] pp.590-591에 의함.

의 능력의 육성과 인재의 공급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러면 한국의 산업사회가 발전하여 오는 동안 경영학의 후계세대로서의 인재는 얼마나 공급되었던 것일까?

〈표 7〉은 64년도 이후 86년에 이르기까지의 총졸업생중에서 經營系卒業生の 推移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서 보면 83년~86년간에 걸쳐 약 10만명에 가까운 졸업생이 배출되어 산업계에 공급되었는데 이는 평균하여 전체 대학졸업생수의 약 10%대의 비중을 점하는 것이다.

1988년 현재의 경영계 주요학과의 개설수나 학생수 및 졸업생수는 〈표 8〉과 같다. 이에서 보면 1988년 현재 사회계열에 속하는 경영계열의 학과수는 총 168개 학과이며 학생수는 98,191명, 졸업생수는 15,690명이다.

(다) 教育方法 및 施設現況

종래 한국의 경영학교육상으로는 강의방법이 주로 적용되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21] [18] p.77 및 [7] [8] p.196). 그런데 이러한 교수방법은 교수들로부터 학생들에게로의 일방적 의사전달을 위주로 하는 이른바 주입식 교육방법이라는 이유때문에 이에 대체되는 교육방법이 모색되었다.

이에 따라 강의식 교육방법에 대체되는 교육방법으로서 미국에서 크게 활용되는 事例研究法(case study)의 도입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cf. [21] [18] p.78). 왜냐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자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한다(cf. [17] [18] pp.572-574).

- ① 이론지식의 이해의 심화
- ② 狀況的 觀點의 배양
- ③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 ④ 動機誘發(motivation)

그러나 사례연구법에만 의존하는 교육방법은 이 방법과 다른 방법을 병용하는 교육방법보다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근년에 이르러 하바드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의 1년차에서는 절반이상의 과목에서 교과서가 결들여진 사례연구방법이 이용되며 2년차에서는 과목의 40%가 사례가 없는 교육방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cf. [28] [18] p.122)에 미루어 사례연구방법 이외의 교육방법으로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영학교육은 교실과 책목, 흑판이 있으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고 기껏 교과서가 있으면 이를 참고로 해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았고 또한 현실이 그러했던 것이다.”([21] [18] p.78)라고 지적될 정도로 근대적인 교육시설이나 機器의 활용이 뒤늦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과 기기의 활용에 의한 교육성과의 제고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투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라) 教育目標와 教科課程

教科課程(curriculum)이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학습하게 될 교육내용인 교과목의 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경영학교육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경영교육위원회에서는 경영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집약하고 있다([20] p.3).

첫째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차의 高位管理者(專門經營者)를 양성하는 즉 專門經營者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관리일반에 관하여 광범한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는 우수한 經營大學院課程에서 일반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둘째는 기업의 특정의 전문관리분야(회계, 재무, 판매 등)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體得케 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수천명의 경영학전공 학부학생들을 거느리고 있는 州立大學이 지니고 있는 교육목표에 가까운 것이라 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영학교육목표와 관련하여 이의 설정은 각 대학에 부과된 과제로 보고(*ibid.*, p.4) <표 9>와 같은 일반적인 教科課程編成方針, 專攻別教科目 및 授業方針을 제안하고 있다(cf. *ibid.*, pp.4-23).

(마) 韓國經營學教育상의 特徵

한국경영학교육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cf. [21] [18] p.79)

① 교육대상인원의 先確保와 교육인력의 後充當방식이 일반적이다.

② 美國式教育體制 및 內容의 移入踏襲이 이루어지고 있다.

〈丑 9〉 目標別教科課程의 模型

課程內容	教育目標		
	A. 一般經營者育成	B. 專門(實務)管理者 育成	
		B-1. 機能 別	B-2. 產業 別
教養·系列必須	19~33學點(平均 10科目)		
共通專攻必須	10~11(科目)×3(學點)=30~33(학점)		
專 攻	(20學點以內로) 專攻 및 關聯系列의 選擇科目	一 生産管理專攻 一 마아케팅專攻 一 財務管理專攻 一 人事管理專攻 一 會計學專攻 一 國際經營管理(貿易) 一 電算應用管理	一 銀行管理 一 中小企業管理 一 保險業管理 一 不動產業管理 一 호텔業管理 一 用役業管理 一 都·小賣業管理 一 非營利機關管理 一 公企業機聯管理 (學校의 特色에 따라 變更가능)
選 擇	20學點內外	10~30學點內外	

자료 : [20] p. 5.

- ③ 각 대학간의 教育方法이나 內容上의 유사성 내지 劃一性이 존재한다.
- ④ 교과과정상 機能的 細分化가 중심이고 事業(또는 業種) 別分化는 적다.
- ⑤ 思考能力이나 創意力開發보다는 지나치게 知識傳達에 치중되고 있다.

3. 韓國에 있어서의 經營學研究·教育의 評價

(1) 貢獻度의 認知

그러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歷史的 基盤하에 형성·수행되어 온 한국에 있어서의 경영학연구·교육의 成果는 어떻게 評價될 수 있는 것일까?

1987년도에 경영학의 貢獻度에 認知實態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81%의 응답자(N=193)가 공헌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직종별로 보면 경영자가 88%, 경상계열 교직자가 91%, 사원이 83%, 경영관련 이외자가 72%를 점하고 있으며 공헌이 가장 컸던 부문은 생산관리 부문, 재무관리부문, 인사관리부문, 마아케팅부문, 회계학부문, 경영기초이론부문의 순으로 되어 있다(cf. [1] [18] pp. 102-103).

(2) 反省點과 問題點

그러나 위와 같은 貢獻度에 대한 認知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反省點이 있음도 제시되고 있는데(cf. *ibid.*, p. 104) 이는 한국경영학교육·연구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① 한국의 경영연구부족
- ② 외국이론의 맹목적 추종
- ③ 이론에 치우쳐 현실에 부적합
- ④ 새로운 이론부족
- ⑤ 經營史 특히 韓國經營史 연구부족
- ⑥ 실증적연구 뒷받침부족
- ⑦ 경영철학의 기초부족

한국의 經營學教育研究는 양적인 면에서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확대추이를 가져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질적 발전이 뒤따르지 못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하 연구와 교육의 兩 영역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가) 經營學研究상의 問題點

첫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韓國經營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경영학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국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21] [18] p. 85) 비판 즉 경영학교육면에서의 無國籍經營學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과도 一脈相通하는 論點이다.

한국에서의 경영학연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기업경영에 대한 說明・豫測・制御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지식체계인 한국경영학의 수립과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당연히 학문적 후발국의 연구전개상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둘째로는 실제문제의 해결에의 공헌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理論과 現實의 乖離라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으로서(cf. [7] [18] pp. 189-190) 앞서 반성점으로서 지적된 바 “이론에 치우쳐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은 통솔적으로 이론과 실재는 다르다느니 하는 批判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이나, 이론을 학문의 핵심으로 보고 이의 실증성을 전제로 하는 學問觀에 입각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연구수준의 제고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 된다.

세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學問間 流行主義(academic faddism)에 따른 研究慣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13] [18] pp. 891-892). 이는 곧 연구자로서의 학자가 뚜렷한 학문적 신념을 가지고 선정된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刻苦의인 노력을 기울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時流를 따라 연구주제나 연구관심이 바뀌는 연구자의 자세에 대해 警覺心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점이다.

네째는 연구상의 추진요인(push factor)으로서 작용하는 합리적인 연구성과의 평가 내지 피드백(feedback)체제가 마비되었다는 문제점이다(cf. [13] [18] p. 889). 이는 토론과 비판이 不毛地化하고 있는 한국경영학계의 研究風土하에서 당연히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다섯째는, 둘째의 문제점과 관련되는 점입과 아울러 교육면에서의 產學協同教育의 不實과도 관련되는 문제점인데 그것은 곧 산학협동연구의 미비이다. 이는 下述하는 산학협동교육과 관련시켜 고찰하기로 한다.

(나) 經營學 教育상의 問題點

한국경영학교육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21] [18] pp. 80-85, [7] [18] pp. 195-196).

첫째, 학생정원에 비해 교수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50을 훨씬 초과하는 대학이 일반적이는데⁽³⁾ 특히 1980년대에 교육여건상 무리한데도 대학정원이 급격하게 증대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둘째, 교수방법상 講義中心의 방법이 주로 쓰여지고 있어서 教育效果面에서 문제가 있다.

세째, 教授補助要員과 教育施設 및 教育用 기자재의 부족이다. 예산상의 제약때문이기도 하나 다양한 교육방법의 도입전개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네째, 학내외에서의 經營學 教育關係 情報 및 資料의 蓄積과 整備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이의 利用體制가 확립되지 않아 연구 및 교육수준이 最新性(updateness)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긴밀한 산학협동교육을 통한 대학과 기업간의 產學連繫活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경영학교육목표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여 경영학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구체화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

일곱째, 한국기업경영의 특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이는 앞서 본 바 한국경영학연구의 미비와 관련되는 문제점이다.

(3) 과 제

그러면 앞서 본 바 문제점을 해결하여 成年이 된 한국경영학계가 이룩하여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 경영학연구상의 과제(cf. [14] [18] pp. 640-647)

(3)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의 경우에도 1:70 또는 1:100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21] [18] p. 88).

한국경영학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고찰한 논자는 한국경영학연구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중심과제와 보완과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1. 중심과제

첫째, 연구자는 그의 학문적 관점(예: 特殊主義와 普遍主義)의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이상적으로는 특수주의와 보편주의를 양극으로 해서 다양하게 연구가 전개되어야 하지만 우선은 下範圍理論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研究方法論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학문적 성격과도 관련되는 문제이지만 연구방향을 이론과 현실의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는 基礎研究 및 應用研究指向性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류복지의 증진에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양자도 조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후자의 발전의 전제가 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범위를 특정기능 영역에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분야와 관련지워 통합적 내지 포괄적 연구를 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연구수준을 微視的 水準에 둘 것이냐 아니면 巨視的 水準에 둘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미시와 거시의 통합된 수준에서 한국경영학은 모색되어야 한다.

2. 보완과제

첫째, 학문발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批判과 論爭을 유발할 바탕이 되는 學風 또는 學派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研究支援手段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 經營學教育상의 課題

경영학교육의 개선을 다룬 논자는 그 課題를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cf. [21] [18] pp. 86-92).

1. 短期對策

첫째, 經營教育目標를 定立하여야 한다.

둘째, 教授人力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勉學雰圍氣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教材, 教育기자재가 확충되고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

2. 中長期對策

첫째, 교수인력의 질적·양적 육성·개발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教育方法의 개발·육성을 통한 教育효과의 제고가 요청된다.

세계, 교육적인 산학협동체제가 구축·활성화되어야 한다.

Ⅲ. 結言—展望과 方向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경영학연구와 교육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크게 성장·발전하여 왔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경영학 연구·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한국경영학연구는 질적·양적으로 큰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4] [18] pp. 639-640).

- ① 社會 특히 實務界나 政府로부터 韓國的 經營모델에 대한 要求(needs)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 ② 교수 또는 연구자의 연구성향이 일반론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더욱 전문성을 띠고 있다.
- ③ 미·일·독 등으로부터의 일반적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韓國經營學을 연구하는 교수 또는 연구자들의 學問的 自負心과 責任感이 증가하고 있다.
- ④ 한국경영학을 深層研究함으로써 오히려 特殊主義로부터 벗어나 中範圍理論 내지는 普遍主義를 추구하려는 학문적 의욕이 강해지고 있다.
- ⑤ 단순한 현상분석으로부터 벗어난 인과관계 등 관계분석을 행할 수 있는 해외유학 교수들 및 신진학자들의 研究方法論의 습득이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⑥ 국내박사학위취득교수들의 한국연구에 대한 강한 선호도와 사명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⑦ 국제적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는 한국적 경영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이다.

위와 같은 韓國經營學에 대한 연구의 活性化는 한국경영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예상되며 경영학교육도 과거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더욱 발전하리라 전망되나 근간의 인재부족현상에 비추어 질적 수준의 제고가 특히 요청된다.

한국에 있어서의 경영학연구와 교육의 전망과 향방의 모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간 미국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영학교육 연구에 대한 평가를 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984년에 美國經營學會(The Academy of Management)의 회장인 스토클(Slocum, J.)은 美國經營學教育상의 問題點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cf. [27] [15] [18] pp. 118-119).

첫째, 미국경영학계내에서의 自體評價制度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미국경영학회내에 1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으나 各分科委員會에 일관된 통일적인 理論體系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미국경영학자들은 놀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와 경영자들이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 “出版 아니면 敗退”(publish or perish)라는 學問風土하에서는 장기간의 연구를 요하는 논문을 쓸 엄두를 못내고 投網式으로 實査(survey)를 한 번 하고 여기서 여러편의 논문을 끄집어내는 식의 연구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네째, 미국경영학교수들은 그들의 관심을 純粹研究와 應用研究의 양쪽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응용연구보다도 순수연구쪽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실정이다.

다섯째, 대학에서의 경영학강의의 효과는 많은 成果基準에 의해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표준이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적평가, 학생들에 의한 교수강의의 평가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경영학강의의 내용과 효과는 졸업생들이 졸업후에 하게 되는 사회활동상의 成就度를 基準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미국의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에서의 경영학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2] p.3).

- ① 교과과정을 세계문제, 윤리문제 및 환경문제와 연결시키는 문제
- ② 리더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문제
- ③ 학과와 실제사회와의 罅(gap)을 메우는 문제
- ④ 우수한 교수와 학생을 유치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첫째는 입학사정기준의 재검토이다. 경영학석사과정입학시험(GMAT)을 관장하는 기관인 경영학석사입학위원회가 2년여의 연구끝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경영대학원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채 術學的인 無氣力症에 빠져 있다고 비판되고 있다고 한다([23] p.8). 이에 의하면 경영학석사(MBA) 출신들은 봉급과 지위에만 연연할 뿐 企業經營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고 심지어는 오늘날 미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부분이 바로 경영학석사 출신 때문이라고까지 극언하고 있다.

날마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기업경영의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의 기업환경하에서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면서 自己革新을 꾀해야 할 經營大學院이 오히려 낡은 경영기법만 가

르치고 유력경제지들이 발표하는 學校人氣度調査에서 상위에 랭크되기 위해 PR비용만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력잡지가 자기 학교를 몇 위에 올려 놓느냐에 따라 학교의 명예와 함께 入學申請者數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한다.

- ① 교수를 뽑을 때 學問的 背景과 함께 實際企業管理 經營을 중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을 뽑을 때 수학과 언어능력에 중점을 두어왔던 學生選拔基準에 人性檢査를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86년부터 하버드대학에서는 입시과목에서 이 시험을 제외시키고, 여러 대학들은 개별면담을 추가하거나 그 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는 教科課程의 改編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석사과정에 입학하면 한 세대전과는 다른 教育內容에 접하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하버드대에서는 수업 첫 날 倫理學의 특별사례연구수업을 받으며 노틀담대학은 모든 코스에 윤리과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환경⁽⁴⁾연구 또한 보편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소한 250개 경영대학원의 석사과정에 「기업가코스」가 추가되고 있다고 한다.

나이스비트(Naisbit, J.)에 의하면 이미 1970년대에 미국 대학에서는 322개의 商業倫理講座가 개설되었으며 현재 미국의 각 대학에는 수천개의 도덕론이나 윤리학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한다([29] p. 331). 따라서 그는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價値教育이나 윤리를 학교의 커리큘럼에 도입할 餘地를 크게 하여 가야 한다”고 하고 그 이유로서 “가치교육없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하는 것만으로는 이 세상을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치교육이 부활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c.f [29] pp. 330-331).

이러한 미국에서의 동향에 미루어 한국의 경영학교육연구의 향방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 한국의 企業經營에 대한 說明・豫測・制御를 가능하게 하여주는 理論體系인 韓國經營學의 構築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그 이론수준을 높여서 成熟化시키기 위한 노력이 기울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경영학은 대상의 한정에서 오는 特殊性의 浮刻과 이론화에 그쳐서는 안되며 궁극적으로는 人類公有的 資産인 學問으로서의 一般經營學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4) 협의로서 자연적 내지 생태적의존이다.

둘째, 經營學教育目標의 명확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앞서 본 바 경영학교육의 목표는 두 가지 즉 최고경영층인 一般管理者(generalist) 양성목적과 기능관리자인 專門管理者(specialist) 양성목적의 두 가지로 한정하는 것은 직업교육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수긍이 간다. 그러나 경영학교육은 광의의 사회교육 나아가 인간교육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經營學科 卒業生은 현실의 사회구조의 主域인 企業 또는 組織體가 필요로 하는 消耗品的인 部品の 存在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들은 미래의 經營世界의 主役이며 문화의 傳達・部品の 存在로 그쳐서는 안되며 그들은 미래의 經營世界의 主役이며 문화의 傳達・創出者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면에서 이들은 成長・發展의 潛在力을 가진 未來指向的인 資本財의 存在인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경영학교육이 지나치게 직업적・기술적 교육차원에서 전문화되어 수행되다 보니 통합적 존재인 인간으로서의 後繼世代인 학생들로 하여금 斷片化된 知識의 洪水 앞에서 自己破綻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反省할 필요가 있다. 價値가 없는 곳에 밝은 未來가 보일 리 없고 명확한 목표의 설정도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면에서 비단 미국에 빗대지 않더라도 오늘날 既成層間과 젊은 世代層間에 형성된 意識의 斷絶을 메울 수 있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교육의 방향으로 경영학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바로 단순한 技術者가 아니라 미래를 洞察・透視하고 適應・創造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세째, 경영학은 궁극적으로는 人類의 未來의 福祉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기업은 인류의 생활복지의 바탕이 되는 財貨나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社會的 役割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경영학은 이들 기업이 教育的으로 운영되어 그 말은 바 社會的 役割과 責任을 다할 수 있도록 이의 설명・예측・제어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영학과 기업은 下可分의 關聯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양자간에는 큰 認知의 罅(gap)이 있다. 그것은 대학의 역할에 대한 沒認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대학은 과연 무색・투명한 중립적인 象牙塔(ivy tower)이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매개로 하여 知的 遠隔制御(intelligent remote control)를 하는 사회의 知的 管制塔(intelligent control tower)이어야만 할 것인가?

이러한 의미에서 부분사회의 하나인 대학과 실업체는 마땅히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인 產學協同關係를 형성・유지해야만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產學協同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좁게 인식・이해되고 있다.

(1) 대학에의 기부행위나 장학금지급 등

(2) 대학 및 기업내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에 의한 커리큘럼의 개발과 편성, 스텝의 교환, 社員教育을 위한 대학과견과 대학교수의 참가, 기업에 있어서의 학생의 실습 등

(3) 양자에 의한 회의, 연구회, 연구개발, 기업의 조사활동의 대행 참가 및 자무활동 등 이처럼 종래의 產學協同은 교육이나 연구면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었는데 이는 주로 기업이 학계의 연구성과를 도입하거나 또는 학계에서 종업원의 능력의 개발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법 등의 연수를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의 산학협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앞으로의 산학협동은 학계가 산업계와 기업에 대한 이론구축의 토대가 되는 實證的 研究를 할 수 있게끔 그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학계의 實態解明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조성하여 주고 그와 같은 연구성과를 통해 개발한 이론을 실제의 기업경영면에 도입·응용하여 학계를 대신하여 實驗을 하여 준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더욱 긴밀한 산학협동관계가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산학협동은 경영학의 발달과 아울러 經營合理化를 통한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학계가 산업계의 현실 내지 실태만을 전제로 歸納的 내지 回顧的 經驗的 研究만 한다면 카프란(Kaplan, A.)이 지적한 것처럼 마치 “백미러(back mirror)만 보면서 운전하는 기사처럼” 경영학연구는 항상 산업계가 거쳐간 발자취(footprint)만 뒤쫓는 연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학계가 나아갈 방향제시를 할 知的 管制塔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학협동은 학계가 앞으로 산업계가 나뉘어야 할 방향을 豫測·算見·摸索하고 이를 전제로 한 현실의 산업계의 病理的 現像의 올바른 진단에 입각한 경영합리화의 방향을 연구·제시하여 줌으로써 산업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용연구에 못지 않게 이러한 연구의 바탕이 되는 분석 내지 연구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에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며 기업은 보다 높은 차원인 文化 내지 學術振興의 차원에서의 產學協同에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金鋪淇, “韓國經營學 30年の 貢獻과 反省”, in [18] pp.95-116.
- [2] 金仁秀, “韓國的 經營學理論開發을 위한 批判的 考察”, in [18] pp.549-570.
- [3] 金元銖, 經營學史, 經文社, 1985.
- [4] 金元銖, “서울大學校40年: 經營學研究, 回顧와 展望”, 서울大學校, 서울大學校學問研究40年—總括, 人文, 社會科學, 1987.
- [5] 金元銖, “韓國經營學的 成熟化를 위한 課題—이의 體系化問題와 관련하여—”, in [18] pp.527-548.
- [6] 金元銖, 經營學研究方法論, 博英社, 1989.
- [7] 金辛述, “우리나라 經營學現實에 대한 小考—教育與件 및 教育方法을 중심으로”, in [18] pp.186-204.
- [8]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 [9] 文教部中央教育評價院統計分析室, 文教統計年報, 1988.
- [10] 徐南源, “韓國經營學的 擡頭를 위한 基本接近에 관한 考察”, 韓國經營學會, 經營學研究, 9輯, 1980, 2.
- [11] 徐南源, “國內研究의 成果와 未來課題의 透視—經營組織分野—”, in [18] pp.649-671.
- [12] 宋基澈, “韓國의 經營學教育의 回顧와 展望”, in [18] pp.31-69.
- [13] 宋 자, “綜合討論: 經營學研究”, in [18] pp.888-892.
- [14] 愼侑根, “韓國經營學研究의 動向과 課題”, in [18] pp.619-648.
- [15] 吳德均, “經營學教育方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in [18] pp.117-124.
- [16] 李成鐸, “韓國經營學 30年の 實證的 研究—韓國經濟發展에 따른 供給側面을 중심으로—”, in [18] pp.156-185.
- [17] 李學鍾, “事例研究現況과 앞으로의 方向”, in [18] pp.571-588.
- [18] 韓國經營學會, 韓國經營學 30年—回顧와 展望—, 서울大出版部, 1988.
- [19] 韓國經營學會編, 韓國經營學研究總目錄, 1971~1981, 法文社, 1984.
- [20] 黃一清, “우리나라 經營學教育의 目標와 教科課程에 관한 研究”, 韓國經營學會, 經營學研究, 第12卷 第1號(通卷 12號), 1982, 9.
- [21] 黃一清, “經營學教育의 課題—問題의 再規定과 그 對策”, in [18] pp.70-94.

- [22] 中央經濟新聞, 1990년 7월 25일자.
- [23] 中央經濟新聞, 1990년 6월 20일자.
- [24] 大田堯, 教育とは何か, 岩波書店, 1990.
- [25]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Expanding and Improving Programs of Education in Management in Korea (IBRD조사단보고서).
- [26] Spender, J.C., "Theory Building and Theory Testing in Strategic Management" in Dam E. Schendel & C. Hofer, (ed), Strategic Management; A New View of Business Policy and Planning,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9, pp.394-404.
- [27] The Academy of Management, The Academy of Management Newsletter, Vol. 14, No. 4, Dec. 1984.
- [28] Business Week, 24, March, 1986.
- [29] Naisbitt, J. & P. Aburdene, Megatrends 2000,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Inc. 1990(同日譯書).